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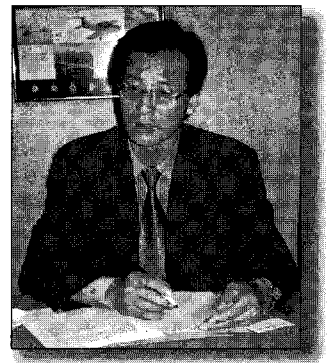
“생존권 위협행위 즉각 중지하라”

본회·뉴측 입장에 대한 협회 반박 서한, 수입 요구 철회 재확인

지난 6월20일 절편녹용 수입에 관한 뉴측의 입장자료에 대해 본회에서는 즉각 재 반박 자료를 발송, 절편녹용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 확인시켰다. 협회는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허용 요구가 국내 양록인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받아 들일 수 없음을 밝히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 결기, 실행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편집자·주)

<본회 반박 서한 전문(全文)>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허용 요구와 관련 귀하의 서신을 접수한 바 본회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 본회 김은성 회장.

- 다 음 -

1. 뉴질랜드를 보는 국내 양록인들의 시각

녹용에 관한한 대한민국의 최대 수혜국인 뉴질랜드가 전지(全枝)녹용 수출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국내 양록인들이 결사 반대하는 절편녹용 수입허용을 요구한데 대해 분개하고 있다.

국내에 녹용을 수출하는 어느 나라도 절편녹용 수입허용을 요구하지 않는데 반해 유독 뉴질랜드만 국내 양록인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절편녹용 수입허용을 즐기치게 요구하고

있어 대(對) 뉴질랜드 감정이 불신을 넘어 적개심으로 치닫고 있음을 유념하기 바란다.

2. 절편녹용 수입이 허용되면 뉴질랜드 원산지 제품임을 인증받을 수 있다는 착각

뉴질랜드는 절편녹용 수입허용 요구 이유로 부도덕한 업자들의 문제를 다루고 원산지 제품임을 인증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국내법상 녹용은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이며 전지녹용도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전지상태에서 수입된 녹용은 국내 제조업소에서 가공되어 원산지 표시 후 유통되는데 어떻게 부정유통될 수 있는지 반문한다.

또한 절편녹용 수입허용 이유로 부도덕한 업자들의 문제점을 들었는데 부도덕한 업자가 절편녹용이라고 해서 부정을 하지 못하겠는가. 마음만 먹으면 절편된 녹용의 포장만 바꾸면 얼마든지 원산지 위조가 가능할 것이며 뉴질랜드 절편녹용을 제 3국(홍콩 등)에서 수입하여 알래스카, 시베리아 순록뿔과 혼합하여 국내에 반입할 개연성이 높다. 우리는 이 점을 매우 우려하는 것이다.

결국 절편녹용 수입허용은 전지상태

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더욱 유통의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며 녹용의 불신을 초래할 것이다.

3. DNA 검사방법에 대해

절편녹용 수입허용을 전제로한 내용이므로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수 십만개의 절편 포장된 녹용을 일일이 DNA검사 및 회분을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뉴질랜드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뉴질랜드는 랜덤검사를 논한 바 있는데 어느나라가 의약품원료를 랜덤방식에 의해 수입통관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순록뿔의 경우 전지상태에서 관능검사만으로 확연히 식별이 가능한데 절편녹용 수입허용으로 DNA 검사방법을 도입할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은가.

4. 제 3시장의 수요개발

GIB는 한국시장이 공급 포화상태이어서 제 3시장의 수요개발을 위해 한국보다 두배의 비용을 들이고 있다는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제 3시장의 수요개발도 중요하지만 뉴질랜드 자체시장 개발에도 주력하기 바라며 점진적인 사슴사육 감축을 검토하여 녹용가치 하락을 미연에 방지하기 바란다.

5. GIB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

GIB가 정부기관이 아니라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GIB의 홍보자료를 보면 정부에 의해 설립되었다고 스스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제와서 발을 빼는 이유를 밝히라! (별첨자료 참조)

6. WTO 원칙에 부합된다는 내용

우리가 알기로 한약재는 WTO 협상 대상 품목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일본의 경우 자기들 규정에 의해 중국산 매화목, 마목 녹용만을 약으로 규정하고 뉴질랜드 녹용은 약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도 우리의 규정에 의해 전지녹용 수입만 허용하고, 절편녹용 수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는데 이것이 과연 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반문한다.

7. 제 5차 한·뉴 경제 공동위원회

오는 9월 제 5차 한·뉴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녹용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데 대해 우리는 천만다행으로 생각한

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개의치 않으며 뉴질랜드가 절편녹용 수입허용 요구를 포기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8. 우리의 각오

뉴질랜드 절편녹용 수입허용 요구는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총 쫓기할 것이다. 뉴질랜드는 더 이상 국내 양록농가를 자극하지 않기를 바라며 절편녹용 수입허용 요구를 즉각 포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뉴질랜드 양록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 양록농가가 희생당할 수 없으며 상호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뉴질랜드의 신중한 처신을 기대한다. 납득할만한 답변이 없을 경우 우리는 8월 중에 강력한 대(對) 뉴질랜드 투쟁에 나설 것이며 실행행사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뉴질랜드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한국양록**

사단법인 한국양록협회

회 장 김 은 성